

영암군 영암읍에 150억 규모 청년주택 들어선다

영암군,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 선정... 지역특화 스마트팜 등 일자리 뒷받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에 사업비 150억 원으로 50호 규모의 '전남형 만원주택'이 들어선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3일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안정적 정착 등을 지원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전용면적 84㎡ 이하 신혼부부, 60㎡ 이하 청년을 위한 살 집으로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10년까지 살 수 있다.

영암군은 전남형 만원주택 유치를 위해 지역 미래 청년 일자리 수요 증가 및 양질의 주거 공급 필요성을 논거로 제시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제2특화농

공단지 조성 등으로 생기는 청년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 부지를 확보했고, 빠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속한 주택 건립에 나설것이라고 해 최종 공모 선정을 일궈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전남개발공사에서 도비 150억으로 영암읍 남풍리에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하고, 운영·관리까지 담당하게 된다.

영암군은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등과 협력해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골마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인 LH와 협약을 맺고 청년



주택을 공급해 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 청년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주

거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택 건립을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2025 화순 봄꽃 축제’ 4월 18일 시작

‘봄날의 꽃, 봄밤의 빛’ 화순에서 즐기는 10일간의 여정

「2025 화순 봄꽃 축제」가 오는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화순읍 남산공원과 꽃강길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낮에 꽃강길에서 유채꽃을 즐기고, 밤에 남산공원에서 경관조명을 감상하는 이원화된 공간 운영이 특징이다. 이에 맞춰 축제 주제 또한 ‘봄날의 꽃! 봄밤의 빛!’으로 정했다.

꽃강길은 2km에 걸쳐 펼쳐진 유채꽃 단지를 중심으로 ‘상상정원’, ‘봄꽃 정원 게이트’ 등 다양한 전시가 구성돼 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포토존으로 꾸며진다.



또 다른 축제장인 남산공원은 어린이 중심의 체험 콘텐츠가 집중·배치된다. 특히 ‘핑크퐁 팝업 놀이터’는 6m 높이의 아기상어 조형물, 에어바운스, 과자집 만들기, 키즈라라 체험 등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핑크퐁 소원지 쓰기’와 ‘아기상어 복권 이벤트’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축제 마지막 주말인 4월 26일 토요일에는 핑크퐁과 튜튼샘의 댄스 파티가 두 차례 열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공식 개막식은 4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화순읍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며 공식식 전국가요제가 축하공연으로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축제기간 중 남산공원 주무대에서는 로이킴(4.25), 정인·황가람(4.26) 등이 출연하는 ‘봄밤 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화순의 이야기를

담은 단품 메뉴 ‘화순 시그니처’(3빵 1크림)도 새롭게 선을 보인다. 화순 탄광에서 영감을 얻은 올블랙 아이스크림, 국화빵·복숭아빵·고인돌빵이 화순을 대표하는 상징과 맛을 온전히 담아낼 예정이다.

축제는 도심 내 위치한 만큼 주차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다. 화순군은 하니움 스포츠센터 주차장을 메인 주차장으로 정하고, 이곳에서 출발하는 무료 순환버스를 통해 남산공원까지 연결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관람객들은 가급적 하니움에 주차한 뒤,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조형재 관광체육실장은 “남산공원과 꽃강길 일원에서 처음 선보이는 봄꽃 축제가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아름다운 꽃처럼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김종환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순천 청년 행정인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천 청년 행정인턴은 행정기관의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는 실과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으로 5월부터 10월

순천시, 오는 15일까지 청년 행정인턴 모집 40명 모집... 실무 경험 제공 및 취업 지원 병행

까지 6개월간,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4월 1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청년(18~45세)이다. 단, 현재 취업 중인 자 및 최근 5년 내 행정인턴 참여자

는 제외된다.

행정인턴 기간 동안 면접이나 시험 등의 취업 활동 시 특별휴가를 한 달에 1일 제공하며, 취업 관련 교육도 병행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구만사(구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프로그램 특강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4월 3일(목) 오후 2시 통합여울림센터(구례읍사무소) 3층 대강당에서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구만사(구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프로그램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시재생과 인문을 중심으로 특강을 개설하였으며, 4월 3일 첫 특강을 시작으로 매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4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첫 강의를 정종민 건축사의 “타 지역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서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란 주제로 진행하였다.

4월 10일(목) 14시에는 장하수 박사의 “도시재생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건과 새로운 도시주의 탐구하기”, 4월 17일(목) 14시에는 정상연 박사의 “음악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도시재생을 모색하기”, 4월 24일(목) 14시에

는 강보선 박사의 “동구 인문학당 사례로 오래된 공간 보존의 가치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 탐색하기”란 주제로 강의가 계획되어 있다.

이번 특강은 모든 군민이 수강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전화 061-781-2333)에 유선으로 신청한 후 통합여울림센터(구례읍사무소) 3층 대강당에서 청강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도시재생사업 주체가 군민이 되어야 한다는 구례군의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구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약칭 구만사!)이란 주제를 갖고 진행된 것이며, 이를 통해 행정과 주민이 공동체가 되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긍정적 시너지를 상징하는 의미를 품고 있다”라고 하였다.

구례/한정호 기자

장성군 “차 한 잔에 ‘청림’ 두 스푼”

민원중점처리부서 방문... ‘찾아가는 청림 티타임’ 눈길

장성군이 최근 민원중점처리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림 티타임’ 시간을 마련해 이목을 끌었다.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계약·관리업무 관련 8개 부서 공직자들과 차담을 갖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격의 없이 소통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률 △부

패행위 신고창구 익명성 보장 스티커 각종 청렴시책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갑질 근절 및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관한 의견도 청취했다.

장성군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청렴시책인 ‘청림온(on)플래’와 ‘부패방지 청림문자 발송’ 등 총 3개 분야 41개 세부실천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청렴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